

# 33

## 그리스도를 예언한 이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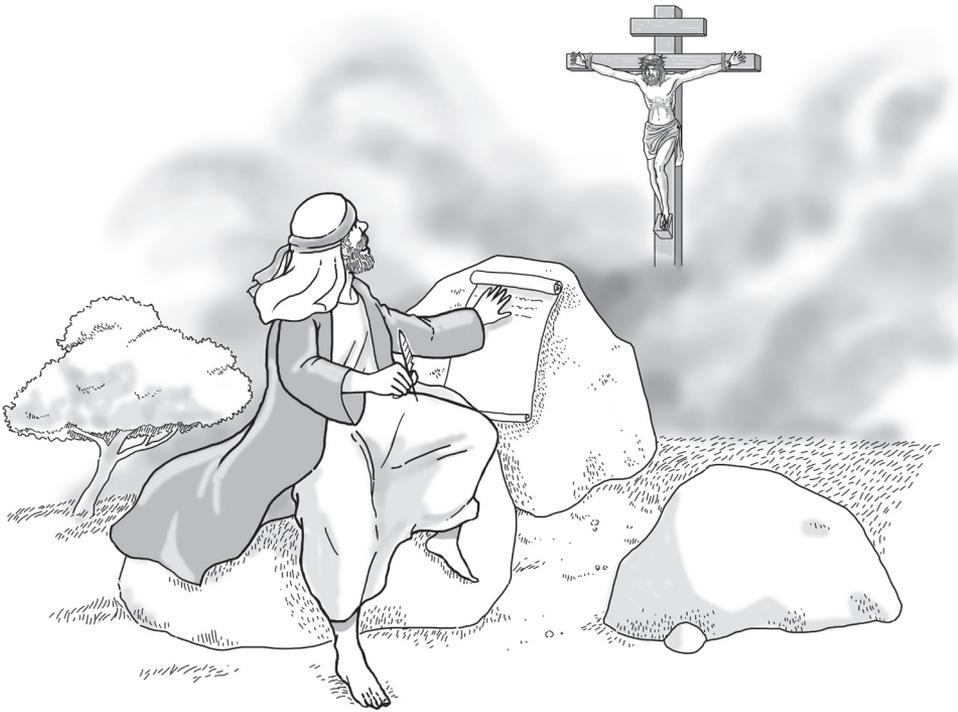
사 6~9장, 53장

찬송가 509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양 11장 (예수 이름 높이세)

오늘 배울



1.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압니다.
2.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과 용서,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됨을 압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이라 하리라 (사 7:14)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라, 라, 이라, , 이라 할 것임이라 (사 9:6)



## 을 이해하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유다 왕 웃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시대에 걸쳐 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귀족 출신으로서 성전에서 예배하던 중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에 기꺼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을 알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다했습니다. 이사야는 악한 왕 아하스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으며, 자신의 소명에 대한 굳은 의지와 열심으로 악에 물들어 있는 유다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그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쉬지 않았으며, 백성들에게는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도 전해 주었습니다. 이사야는 또한 세상 열국에 대해서도 부도덕과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며 죄에서 돌이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그리스도에 대해 가장 많은 예언을 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생애, 전하실 메시지와 행하실 기적, 받으실 고난과 대속적 죽음 그리고 승천과 재림을 모두 소개했습니다. 또한 최후에는 전 세계에 평화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이사야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유다 백성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선지자로서 고난의 길을 걷다가 므낫세 왕의 통치 기간 중 톱에 목이 잘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 공과말씀 정리

---

---

---

---

---

---

---

---

---

---



##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Also I heard the voice of the Lord, saying: "Whom shall I send, And who will go for Us?" Then I said, "Here am I! Send me." (Is 6:8)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2

스랍이 가져온 숯불로 거룩히 구별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에 자발적으로 응답하여 자신을 보내주기를 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누구에게 보내고자 하시는지 이사야 6장 9~10절을 읽고 설명해 봅시다.



##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세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분류대로 이사야서의 주어진 각 장에서 해당 구절을 찾아 적어봅시다.

구분	해당 장	해당 구절
예수님의 탄생	사 7, 9, 11장	
예수님의 고난	사 53장	
예수님의 부활	사 26장	
예수님의 재림	사 63~64, 66장	

- 2 이사야서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루어질 복음과 관련된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아래 성경 구절들을 찾아 핵심 단어를 적어봅시다.

성경 구절	핵심 단어
사 1:18	
사 12:1~2	
사 38:17	
사 43:25	
사 44:22	
사 53:5~6	
사 54:9~10	

- 3 '이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 및 주제와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이자 심판자로 세우신 분은 결국 누구인가요?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사 1:18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두

사 6:8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화

사 9:6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

사 53:5

---

---

---

---

---

---

---

---

가

사 53:11

---

---

---

---

---

---

---

---

미

요 1:29

---

---

---

---

---

---

---

---

부

요일 3:5

---

---

---

---

---

---

---

---



## 전화위복(轉禍爲福)

스코틀랜드에서 낚시로 하루를 보냈던 어떤 사람들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낚시를 끝낸 그 날 저녁 그들은 묵고 있던 조그만 여인숙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자기가 놓친 물고기의 크기를 장황하게 설명하다가 차를 나르던 여종업원에게 손을 내뻗치게 되어 차가 하얀 벽에 튀게 되었습니다. 보기도 흉한 갈색 얼룩이 벽에 나타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 중 한 사람이 일어서더니 걱정 말라고 하며 얼룩 주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곧 거기엔 커다랗고 날렵한 사슴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그 솜씨와 그림에 감탄을 했고 자신의 실수로 마음을 졸였던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동물 화가인 에드윈 랜드시어경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의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주님의 크고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일 1:9~10)



## 질문 있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실 때는 잘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돌변하여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바벨론, 메대 파사, 헬라, 그리고 로마에 의해 계속적인 지배를 받고 있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빨리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압제자인 로마로부터 독립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지구상에 왕국을 건설하기를 고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눈앞의 세상적인 문제들의 해결에 집착하면서도 정작 예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죄와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은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거나 육신적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그 영혼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영혼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이적을 지켜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천명을 먹이신 이적을 보이자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며 예수님을 붙잡아 억지로 임금을 삼고자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 로마를 향한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피해 산으로 가셨습니다(요 6:15). 이렇게 정치적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피하시자 실망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게 됩니다. 이는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요 5:38)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고전 2:8)

또 눈 앞에 있는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문제의 해결에 집착하므로 인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같은 이유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